

2026
04

병리협보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amt.or.kr

CONTENTS

01 COVE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현안 실무
협의 진행

02 FOCUS

국가검진의 시각 지대,
임상병리사 없는 검진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03 KAMT NEWS

-2026 연구과제 발표 심사
-지역사회 방문현장 검사
(POCT) 사례집 발간

04 INTERVIEW

-보건복지부,
정만석 사무관 인터뷰

제519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
주식회사 티알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현안 실무협의 진행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 업권 수호 및 영역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와 실무협의를 2026년 3월 25일 (수) 오후 2시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실무협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하예진 사무관, 서희옥 주무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성호 교육이사,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회장, 이동섭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장, 김기유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실무협의 안건으로는 (1) 생리학적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 사유 및 대응방안과, 임상병리사가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직역과의 업무가 상충되는 회색지대(Gray Zone) 문제 (2) 보수교육 및 협회비 납부에 대한 개선 방안과 면허신고 불이행자 처분 절차 및 협회의 관리 권한에 대한 건 (3) 임상병리학과 입학정원 조정, 임상실습 규정, 학제 일원화 방안 등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1)안은 협회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임상병리사 생리학적 검사 관련 유권해석의 개요 및 현황과 업무 전문성에 관한 사항이다. 김상훈 학회장은 임상병리사가 진단검사, 조직검사, 생리기능검사 등 전문 영역에서 법적 면허에 기반하여 고난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사, 심리사 등 일부 사설 자격 직군이 현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급기야 임상병리사의 업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행정처분이 난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기법상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병리사가 초음파 검사를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률과 유권해석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협회가 요청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직역 간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일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국민신문고 및 기타 민원 접수 과정에서 제기된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답변서를 협회가 공식 요청 시 제공함으로써 임상병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유권해석 회신 내용인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뇌혈류·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안은 대면 교육 활성화와 보수교육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호 교육이사가 설명하였다. 장성호 이사는 시도회 및 분과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대해 중원회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운영 방식이 가능한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현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협회는 그동안 고질적인 면허신고 불이행자와 보수교육 미필자에게는 행정처분 경고장 발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지만 예산 관계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발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협회가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을 위탁 수행하는 법정단체로서, 회원에 대한 이행 촉구 및 경고 조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안은 임상병리학과 입학정원 조정, 임상실습 제도, 학제 일원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섭 회장이 설명하였다. 이동섭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재 임상병리학과와의 충원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감원 인원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 간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하여 협회 및 교수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 확대를 위한 공문 또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학제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국가건강검진의 사각 지대, ‘임상병리사 없는 검진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기유

■ 국가건강검진의 위상과 제도적 허점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적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의학의 핵심 기틀입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선진화된 검진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 뒤에는 검진의 질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일일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내원검진기관(의원급)의 경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제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전문 인력이 배제된 채 검진이 이루어지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는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가가 부재한 ‘검진의 사각 지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제도 도입 초기(2007년경) 수검률 저하 등의 이유로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의 검진기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는 건강검진기본법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 제4조 제2항(개정 2012. 3. 7)에 따른 검진기관 개설 요건 확장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진단검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력·장비가 없어도 검진 의사가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인력 기준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검률 저하와 검진기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인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 배치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기준을 두었던 이 조치는 실제로 수검률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이후 수검자 증가와 현장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검진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무자격 인력이 대신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자료를 보면 전체 일반검진기관 현황 6,550개소 중 의원급이 80.0%(5,216개소)이고 이 중에서도 일평균 15인 미만 기관이 94%(4,908개소)입니다. 특히 이들 일평균 15명 미만 검진기관에서 임상병리사 미고용은 58.2%(2,856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계로 본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부재의 위험성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 결과, 2018~2019년 공단 기획사업 분석에서 ‘부정적’ 처분을 받은 기관 중 일평균 검진 인원 15인 미만 기관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검진기관에서의 질(質) 관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확한 검진 결과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검진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보조 인력’ 그 이상입니다. 관련 연구 결과(성현호 등, 2020)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지침서

에서 임상병리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8.3%에 달하며, 일반 건강검진 항목 중 임상병리사 업무와 직결되는 항목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전체 건강검진 비용 중 임상병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 51%에 이릅니다.

이처럼 검진 업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15인 미만’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전문 인력 배치를 면제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임상병리사가 없는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 등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검체의 채취, 원심분리, 보존 및 이송에 이르는 전처리 과정(Pre-analytical phase)의 질적 붕괴로 이어집니다. 검사 오류의 상당수는 이 전처리 단계에서 발생하며, 비전문 인력이 이를 수행할 경우 검체 혼탁, 용혈, 변성 등으로 인해 위음성 또는 위양성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질병의 미진단 또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도 채혈 및 검사 업무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채혈 및 검체의 원심분리·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및 「의료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국민 건강권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회의 노력

이에 우리 협회는 2025년 4월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장종태 의원, 협회 임원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15인 미만 검진기관에 대한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 예외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부와 실무 논의를 거쳐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문제는 이해단체의 반대가 심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 문항 내 임상병리사 유무 항목 상향 조정 및 공단검진기관 찾기 서비스에 임상병리사 유무 조항을 추가하여 임상병리사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이후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 범위가 보다 명료해짐에 따라, 협회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4월 중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협회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행정실무자워크숍 실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4월 4일(토) 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시도분과 및 산하단체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행정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시도분과 및 산하단체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규정과 절차에 기반한 표준화된 업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행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정확한 규정 준수와 투명한 행정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교육에서는 행정실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중앙회 공문 송부 방법과 문서 인수인계 절차를 비롯하여, 회의비·출장비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 작성 기준, 광고비 처리 및 계약서 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협회관 대관 절차 및 이용 수칙, 행정지도감사 준비 및 대응 방법 등 시설 및 감사 관련 관리 기준도 함께 다루어졌다. 아울러 보수교육 정산 절차 및 관리 기준과 시도분과 운영 평가 기준, 패널티 적용 사항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도 공유되었다.

제28대 중앙회는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회무 운영을 바탕으로 시도분과의 내실을 강화하고, 행사 관련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한편 출장비·통신비 등 각종 경비의 과지급 및 근거 부족 지출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도분과 및 산하단체의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회무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제516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월 13일(금)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고 부장 26명 중 14명, 총원 45명 중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6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2026년 행정 실무자 워크숍 개최 안내, 2026년 제517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6년 제189차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의 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6년 제64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주대회 2차 홍보지원금 지급, 2026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및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예산 지급, 세무사 사무실 변경 보고, 전재진 대외협력 자문위원 계약 보고,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2026년 제2차 학술부 회의, 2026 KAMT 연구정책 과제 공모 및 접수 현황, 대만 해외연자 모집 결과, 제주 종합학술대회 분과학회 통합 심포지엄 운영, 2026년 제4차 편집위원회 회의 ▲교육부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수도권 실장 회의, 보건복지부 및 의기총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회의, 2026년 제1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전북도회 하이브리드 교육 운영의 건,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위원장 회의 ▲국제부 2026년 제17회 대만학회(APFMLS) 초청연자 및 국제학생 포럼 안내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신규 광고 계약 현황, SNS 홍보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의 건, 월별 옴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정무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 국회토론회 참석 보고의 건 ▲대외협력부 2026년 제64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1차 회의 ▲보험부 제2차 보험부 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했다. 제516차 상임이사회는 기타 토의 논의 후 의장의 폐회 선언에 따라 폐회했다.

2026년 연구·정책과제 발표 심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월 24일(화)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연구·정책 과제 심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협회는 검사실 운영 표준화, 중소병의원 검사실 및 인력 운영 구조 개선, 학제 일원화 후속정책, 통합돌봄 기반 임상병리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발표에는 박상구(건국대학교병원), 박준영(세브란스병원), 이동섭(해전대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심사위원으로 김한규, 송기선, 지우현, 최병후, 강윤정(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였다. 심사는 과제의 필요성, 연구 목표 및 방법, 기대 성과 및 활용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 방문현장 검사 (POCT) 사례집 발간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26년 통합돌봄 정책의 전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의 임상병리사 방문현장 검사(POCT) 사례집’을 발간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과정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방문현장 검사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특히 병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재택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와 즉각적인 건강 상태 평가가 가능한 POCT의 중요성과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례집에는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회의 다양한 현장 검사 운영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혈압·혈당·당화혈색소·지질검사와 AI 기반 안저검사 등 다양한 검사 항목을 활용한 서비스 수행과 함께 검사-상담-의료연계가 통합된 운영 모델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상자 가정,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검체 채취부터 결과 제공,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 사례도 포함되었다.

협회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방문현장 검사(POCT)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임상병리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64회 종합학술대회 안내 및 미래융합심포지엄 연자 모집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서는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Creative Evolution in Medical Technology: Shaping 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유 구연 발표자를 모집합니다.

가. 학술대회 개요

- (1)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 9월 19일(토), 1박 2일
- (2) 주제: 임상병리학의 창의적 진화를 통한 글로벌 표준 정립
- (3)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나. 미래융합심포지엄(국내심포지엄) 안내

- (1) 발표일시: 9월 18일(금) ~ 9월 19일(토) 중 배정 예정
※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 후 안내 예정
- (2) 발표시간: 약 20분 (질의 및 응답 5분 포함)

다. 미래융합심포지엄(국내심포지엄) 발표 주제

- 학회 대주제와 연관된 모든 연구 주제

[예시]

- (1) 최신 임상병리학 이론 및 검사법 소개
- (2) 임상검사의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 (3) AI 및 데이터 기반 분석
- (4) 바이오마커 및 정밀 의료
- (5) 검사 정도관리 및 표준화
- (6) 기타 임상검사 관련 연구

라. 지원자격 및 발표형식

- (1) 지원자격: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
- (2) 발표형식: 가) 구두 발표 (Oral Presentation)
나) 발표언어: 한국어

마. 접수마감일

- 접수마감: 2026년 4월 30일(목) 23:59

※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mt.or.kr/news/notice_view.aspx?brdId=140237

중앙회 동정

03월 10일 새내기 교육 진행 준비 회의
03월 17일 2026년 분과학술 회의
03월 24일 2026년 연구정책과제 발표 심사
03월 28일 제2차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03월 31일 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서버 관련 회의

03월 14일 제2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03월 21일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03월 27일 협회-POCT 업체 MOU 실무협의 미팅
03월 30일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관련 제3차 회의

임상병리사 출신 보건복지부 정만석 사무관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은 환자 진단의 최전선인 임상 현장에서 발휘되며 정확한 검사 데이터를 통해 보건의료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공공 보건과 정책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며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행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임상 현장을 넘어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자로 재직 중인 정만석 사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임상병리사로 활동하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직 진출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약 7년간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하며 축적한 경험을 보다 넓은 공공 보건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직 진출의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적 경험을 국가 보건정책과 제도 개선에 연결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은 감염병 대응, 건강검진 관리, 역학조사 등 다양한 공공 보건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개인 환자 단위의 진단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책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공직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2. 임상병리사로서 근무할 때와 공직자로서 근무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또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임상병리사와 공직자의 가장 큰 차이는 업무의 범위와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검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밀성과 정확성이 핵심이며 심화된 전문성 축적과 연구 중심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로서의 업무는 기획, 정책,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역량을 요구합니다. 특히 행정과 정책을 집행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원 해결이나 행정 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Q3. 공직사회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을 접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나 역할이 부처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임상병리사는 진단의 기초가 되는 검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의료 정사 결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이나 국가 건강검진과 같은 공공 보건 영역에서는 검사 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검사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적 특성상 일반적인 인지도나 직역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주체로서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은 내부적으로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임상병리사의 역할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바라보는 임상병리사의 미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임상병리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검사 수행을 넘어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서 데이터 기반 의료와 공공 보건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감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검사 인력을 넘어 공중 보건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임상병리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문가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지난 3월 20일(금) 사단법인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회장 김세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및 산간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의료봉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경기도회 소속 자원 봉사단 '다빈'의 숙련된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혈관이 약해 채혈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통증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의사 진단 근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임상병리 분야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보건 현장에 직접 투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해 다빈은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와 함께 강원도 홍천 등 보건 의료 취약지역 9곳을 방문해 2,2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채혈 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채혈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건강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재능 기부를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유대도 함께 쌓아왔다.



유광철 회장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묵묵히 검사 업무를 수행했던 1만 1천여 명의 경기도 회원이 이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각 지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전립선-배뇨관리협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문적 가치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회는 앞으로도 전문 의료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및 우수지회 수상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지난 2월 28일(토)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에서 열린 2026년 제64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개회식 및 시상식에 이어 전 회의록 승인, 2025년도 회무 및 경과 보고,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이 논의·의결되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우수지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는 한 해 동안의 도회 운영 성과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김극준 학술부회장이 협회회장을 수상하여 경북도회의 학술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뜻깊은 순간이 되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회원 중심의 활동과 학술 역량 강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도회 발전과 임상병리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 구미 박정희마라톤대회 참여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2026년 3월 1일(일) 6시부터 13시까지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 4번 주차장에서 열린 2026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여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의료봉

사에서는 마라톤 참가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함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한 Troponin I 검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며 임상병리사의 현장 검사(POCT) 업권을 홍보하고, 안전한 마라톤을 위해 조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였다. 특히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합니다”라는 메시지 아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날 활동은 운동과 건강관리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박진영)는 지난 3월 14일(토) 제1차 정기이사회를 실시했다. 의안으로는 제64차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보고를 비롯하여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와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무부에서는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 참석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향후 진주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렸다. 국제부에서는 제17회 아시아-태평양 의학검사과학포럼(APFMLS) 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하였다. 학술부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폐기능 검사 실무교육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오는 4월 26일(일)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적 안분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실무 중심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각 부서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되었다.

경상남도 진주 분회 간담회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박진영)는 3월 17일(화) 18:30 진주분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진주 지역 7개 병원 소속 회원 14명과 도회 집행부가 함께 참석하여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경남도회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오는 4월 26일(일)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보수교육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남도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회원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 광주시회 사랑나눔 봉사 활동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는 지난 3월 7일 광주 동구와 남구 일대에 위치한 그룹홈을 대상으로 ‘사랑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 활동은 총 11가정의 그룹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활동에는 광주시회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회원들은 각 그룹홈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서정훈 광주시회 회장은 “전달한 생필품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최우수지회상 수상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는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병리사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우수지회상’을 수상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회무 보고와 함께 각종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에서는 총 9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으며, 체계적인 지회 운영과 활발한 회원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인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소속 문성식 회원은 보건의료 발전과 임상병리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수봉 회원은 대한임상병리사회회장 표창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과 단합된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임상검사 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성료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권지연)는 지난 1월 21일(수)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대의원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재호 총무이사의 개회로 시작된 1부 개회식은 이승철 행정부회장의 임상병리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권지연 대전시회장의 인사말, 장종태 국회의원과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회회장의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대의원 총회에서는 육근돌 총회의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 보고와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현주 재무이사는 2025년도 사업 결산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으며 이재호 총무이사는 2026년도 사업계획(안)과 회칙 개정(안)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대전광역시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6년 제1차 집행부 회의 개최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2026년 03월 10일(화) 부산 시회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집행부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임원진이 모여 상반기 사업 및 정책 관련된 논의를 나누고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의료봉사로 전북도민과 건강동행 한걸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김현준)는 4월 5일 ‘2026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서 의료봉사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

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전주기전대학 등 도내 대학 임상병리학 전공 학생과 회원 등 4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부스 운영과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지역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국내외 1만 2,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형 국제대회인 이번 마라톤에서 전북임상병리사회는 ▲심전도 및 혈압 검사 ▲혈관 건강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 다양한 현장 진단검사를 제공했다. 검사 결과 일부 참가자에게서 심방세동과 폐쇄성 환기장애 의심 지표가 확인돼 안전한 경기 참여를 돕고, 필요 시 정밀 진료를 권유했다. 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검사 기기 운용과 결과 안내를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환자와 소통하며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 관계자는 “전북임상병리사회의 지속적인 의료봉사 참여로 참가자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준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각종 행사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특히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겠다”며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지역 보건의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의료봉사로 전북도민과 건강 어울림 한마당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김현준)는 4월 3일 ‘2026 김제시 건강체험마당’에서 의료봉사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

에는 전북임상병리사회 회원과 원광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생 등 1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행사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도민과 요양·돌봄기관 관계자들이 단체로 방문했으며, 약 400여 명이 의료체험 부스를 찾았다. 부스에서는 현장 진단 검사 기기를 활용해 ▲심전도 및 혈압 검사 ▲혈관 건강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제공했다. 검사 결과 일부 방문객에게서 심방세동 및 폐쇄성 환기장애 의심 지표가 확인돼, 현장에서 김제시 보건소와 연계한 진료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제시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전북임상병리사회의 의료봉사가 지역행사 모범사례로 소개되면서 이번 행사에 초청하게 됐다”며 “방문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현준 회장은 “의료봉사 활동이 지역 내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임상병리사회는 앞으로도 소외지역의 의료 접근성과 인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2026년도 임원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은영)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성북구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2026년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은영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집행부, 수혈전문병리사(SBB) 위원회 위원, 전직 학회장 등 15명의 임원이 참석해 학회의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학술·사업 운영 방안 ▲재무·회계 관리의 효율성 강화 ▲2026년 추계학술대회 준비 ▲수혈전문병리사(SBB) 워크숍 운영 ▲회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학회는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여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학회장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술 정보와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는 오는 2026년 임상수혈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10월 31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철저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6년 1차 평의원 회의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는 2026년 2월 21일(토) 2026년도 1차 평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의원 회의는 평의원 총원 35명(고문 제외) 중 회의 참석 16명과 고문 3명으로 성원을 이뤘으며 학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평의원 회의 의제로는 2025년도 중앙회 행정지도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었으며, 사무행정 분야, 재무회계 분야 및 보수교육 분야에 걸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내용에 대한 보고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회의 운영 내실화와 체계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임상검사정보학회

품질관리전문임상병리사

- (1) 접수일자 : 2026년 3월 15일 ~ 5월 11일
- (2) 수 련 비 : 40만원
- (3) 입금계좌 : (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 (4) 지원자격 :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시험응시 당해 연도 1월 1일까지의 임상 근무경력이 만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며 반드시 해당 검사학회 주관의 전문임상병리사 관련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5) 강의일정 : 2026년 5월 17일 ~ 6월 21일
(6주, 매주 일요일 7시간)
- (6) 강의시간 : 전체 수강 시간 (42시간),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식사 제공)
- (7) 강의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하 대강당
- (8) 시험일자 : 차후 공지

(9) 강의목록

- | | |
|----------------------------|---------------------------------------|
| 1. 품질관리 개요 | 13. 검사실 인적자원 관리 |
| 2. 검사실 재무관리
(물품 및 재고관리) | 14. 임상검사정보체계
(HIS, LIS, Interface) |
| 3. 검사실 지표관리 | 15. 장비 도입 시 선택과 평가 |
| 4. 검사실 설계 및 Setting | 16. 검사실 검량보전
(Calibration) |
| 5. 검사실 사용 물 관리(정수기) | 17. 검사실 안전관리 |
| 6. 검사실 운영관리(인증기준) | 18. QA 및 학습조직 |
| 7. 검사실 수가 1, 2 | 19. 검체 채취 교육 및 실습 |
| 8. 문서관리 | 20. POCT |
| 9. 환자 의사 소통(CS) | 21. 신생아 검체 채취 |
| 10. 관리자 리더십 | 22. 검사실 위험관리 |
| 11. 6시그마 정도관리 | 23. 검체 용기 관리 및 활용 |
| 12. 자동분석기 역사 | 24. 검사실 시약 평가 |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 · 분자진단 · 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 · 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 · 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 미국 · 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 · 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Korea, Seoul)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edical.com



 OPEN
Healthcare

 02-2114-8000
 www.ohc.global
 ohc@ohc.global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부 -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구분	관리기준
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인력기준”을 따름
검체검사의 위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400mg/dL 이상일 경우 실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검사 ○ 위암검사 중 병리조직검사 ○ 간암검사 중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검사 중 분변잠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 자궁경부암검사 중 자궁경부세포검사 ○ 그 외 검체검사 위탁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부록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중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을 따름
검체채취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청은 혈액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원심 분리하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하여 옮겨야 함) 검사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단,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후 적절한 검체처리(검사항목, 혈청 분리 절차 등) 및 보관(-20°C이하 냉동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10일, 2~8°C 냉장 보관할 경우 분리된 혈청 보관허용 기간: 5일)에 대한 규정이 진단의학검사실 운영과 면역혈청분야 지침에 있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일반혈액검사용 검체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검체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대변은 5g정도를 채취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되어야 함 ○ 분변잠혈검사는 전용 완충액이 담긴 용기에 채취되어 냉장 보관되어야 함 ○ 병리조직검사인 경우 검체 양의 10배 양에 해당하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있는 용기에 담고 밀폐한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세포병리검사인 경우 검체를 도말한 후 즉시 95% 에틸알코올 용기에 담거나 분무형 고정액을 뿌려 고정하여 검체를 의뢰하여야 함 ○ 위에 따라 실시된 검사 중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이 확인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온도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함 ○ 각 검체별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함
검체의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의 이송에 사용되는 용기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검체 이송에 대한 관리를 위해 검체 이송 용기의 온도기록지를 두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검체검사를 위해 검체를 이송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정한 섬·벽지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물으로 이송하는 시간은 제외 - 간질환검사 중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분리된 혈청으로 -20°C이하 냉동 보관할 경우 10일 이내, 2~8°C 냉장 보관할 경우 5일 이내 ○ 검체를 이송할 때에는 보관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검체를 이송하여야 하며, 혈청검체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Gel Tub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혈구와 혈청을 분리)를 하여야 함 ○ 병리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병리과에서 육안검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체를 바로 위탁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에서 미리 검체를 부분 제작 및 염색을 시행하여 슬라이드를 보내지 않아야 함 ○ 검체를 인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각 검체에 대해 검체번호와 수검자번호가 일치하는지와 혈액 검체상태가 용혈, 황달, 혼탁 상태인지를 확인한 다음 상호 서명하여야 함
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건강검진 검체검사 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및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검진 검체검사 결과지”(별지 제19호 서식)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Web(on-line system)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함 ○ 검진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의뢰서 및 수탁기관에서 사용 중인 검사결과지가 별지 제18호와 별지 제19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검체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검사 및 결과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의 보존은 검사의뢰일 및 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관

TR
CORPORATION

2026년 공단검진 폐 기능 검사 추가 The Spirokit으로 대비하세요



KAMT NEWS



검사 결과 최신 지침 참고 분석 및 해석 보조

- GINA, GOLD 최신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검사결과분석 지원
- 폐기능검사 지표의 해석 일관성 및 검사품질 향상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검사 가이드 화면을 통한 표준화 된 검사 과정 안내
- 검사 오류 및 재검률 감소로 검사 시간 효율화
- 검사 중 환자 스트레스 및 피로도 감소

국내 생산 기반이 국산 폐기능검사 장비

- 3L Calibration Syringe, 온습도기압계, 검사기 등 모든 장비 국내 생산
- 국제 폐기능검사기 품질기준 ISO 26782:2009에 따른 시험성적서 보유

다양한 검사 환경 대응

- 높은 휴대성으로 병동·외래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 (무선 PACS 연동을 통한 병동검사 지원)
- 공단 폐기능검진 및 특수폐기능검사에서도 활용 가능

제품문의

042-719-8823

newxman@theresearcher.co.kr

차세대 의료기기 전문기업
TR CORPORATION

회원 권익 보호

인천현송중학교 협회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본 임상병리사의 직업적 위상과 진로지도의 가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실장 김기유

지난 2025년 12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인천현송중학교 과학교사로부터 공식 질의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평가 문항 중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시험 문제의 정답 여부를 가리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미래의 과학 인재들에게 '혈액'과 '분리 기술'이라는 전문 영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직업적 전문성을 교육 현장에 각인시킬 소중한 기회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중등 과학 평가 문항에서 '혈구 성분'의 해석 및 크로마토그래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요청 (인천현송중학교 과학교사 ○○○)

5.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 (4점)

- ① 꽃잎의 색소
- ② 식품 속 잔류 농약
- ③ 소변 속 여러 용해 물질
- ④ 혈액 속 혈구와 혈장 성분
- ⑤ 운동선수들 약물 성분 분석

정답 ④

사건의 발단은 '혈액 속 혈구와 혈장 성분'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수 있는냐는 학생들의 창의적(?)이지만 과학적 충위가 혼동된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주장은 혈구를 파쇄한 뒤 얻은 단백질, 펩타이드, 대사체, 지질 등의 분자 성분은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문항이 정답 없음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9과08-03]에 따르면, 중등 수준에서의 혼합물 분리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밀도, 용해도 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을 세포 성분(혈구)과 액체 성분(혈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물학적·물리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한 표준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심분리는 밀도 차를 이용하여 입자를 손상 없이 분리하는 '물리적 상(phase)의 분리'인 반면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질의 이동 속도 차를 이용한 '분자 단위의 분석'입니다. 거대 입자인 혈구 세포를 크로마토그래피 고정상에 직접 주입할 경우, 세포가 통로를 막아버리는 '막힘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혈 상태의 혈구 분리 수단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혈구 파쇄 후 분석' 주장은 성분을 온전하게 확보해야 하는 '분리'의 정의를 벗어나 '성분 추출'의 영역으로 넘어간 오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의 정답을 4번(혈액 속 혈구와 혈장 성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오류가 없으며,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합물 분리의 적절한 충위와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적 탐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지만, 평가의 영역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교육적 성취기준 내에서 가장 타당한 원리를 찾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교육계에 임상병리사는 검사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검사 데이터의 생산·해석하는 보건의료 지식의 표준을 정립하는 전문 인력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교육과정의 해석에 있어 임상 현장의 전문가 단체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임상병리사의 학문적 깊이와 사회적 영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건의료 정책 및 교육의 파트너로서 단순한 의료기사(技士)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과 교육에 접목하는 '보건의료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들에게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병원에서 혈액을 뽑거나 검사 장비를 돌리는 직업이 아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혈액 한 방울에 담긴 세포와 분자의 세계를 완벽히 통제하고 분석하는 임상병리사의 모습은 이과 계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은 임상병리사에게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윤리적 책임감'을 보여준 실제 사례입니다. 진단검사의학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유권해석 등 임상병리사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줌으로써 직업 선택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인천현송중학교의 사례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 협회의 전문직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임상병리사의 꿈을 심어주는 큰 울림이 되었다고 봅니다. 협회에 유권해석 질의를 하신 과학교사 선생님께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로 지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 및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회원들이 '검사실의 과학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외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상평 EVENT



이번 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접수기한 • 2026년 4월 20일(월)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제518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서보경 임상병리사 인터뷰

● 김나은(정회원) / 면허번호 : 74775

서보경 임상병리사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읽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조금 넘는 신입으로서, 아직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현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작년과 올해 구직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채용 공고를 보면, 임상병리 업무 외에도 청구, 접수, 수납 등의 업무가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서도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입 임상병리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채혈 업무만 맡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심지어 의원급에서 일하는 동기 선생님은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추천받았다 합니다.

최근 채혈 과정에서도 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채혈을 한 번 실패한 뒤,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수액을 위해 토니켓을 묶자, 환자분께서 "임상병리사 선생님께서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유방암 수술 했다고 했는데도 수술한 쪽 팔에 토니켓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채혈이든 장비를 다루든 매뉴얼을 익히면 조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이라 생각하며, 저 역시 그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서보경 임상병리사 선생님 말씀처럼 임상병리사 본연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환자분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종사자의 근로 현실과 과제를 묻다

● 서요한(정회원) / 면허번호 : 21846

연차에 따른 직종별 월임금과 추세선에 대한 삽화 삽입이 있어 눈여겨 봤습니다. 짐작만 하던 것을 그래프와 함께 보니, 가독성이 좋고 내용에 신뢰감이 더해졌습니다.

더불어, 3페이지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명단에서 국가고시가 아니라 국가시험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 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3월 언론보도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라톤 행사 심근경색 검사 이젠 '필수' ...
임상병리사 현장지원 '호응'



임상병리사협회,
바디텍메드와 통합돌봄 검사서비스 확대 협력



임상병리사협회,
5인 미만 의료기관 노동권 확대 논의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전북도 임상병리사회
'2026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의료봉사



전북 임상병리사협회,
'2026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의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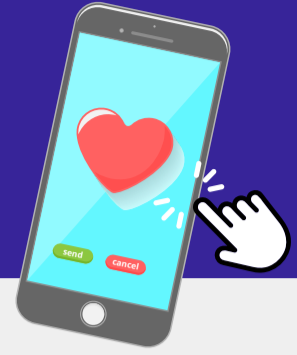


전북임상병리사회,
김제 행사서 '현장 의료봉사' 진행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 추가 해주세요.



부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회



울산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광주광역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경상남도+
임상병리사회



충청북도+
임상병리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